

#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김 대 속

## 〈차 례〉

1. 머리말
2. 자료와 구성요소
3. 가족관계라는 인물구도
4. 가족간의 입장과 역할의 차이
5. 보상의 문제와 현실적 세계관
6. 마무리

## 1. 머리말

만약에 한국문학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붙잡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옛날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호랑이 이야기’, ‘선녀와 나뭇꾼’ 또는 ‘홍부와 놀부’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설화조사를 나가 보거나 수집 정리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내용이 ‘바르고 그르기’라는 선과 악에 얽힌 이야기이고 그 중에서도 효자와 열녀의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상위유형별로 대조해 보아도 효행담이 일순위이고 열녀담이 그 다음인데 수집된 각편 숫자가 다른 유형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다.

결국 이런 현상은 한국인이 가장 즐겨하는 이야기, 가치가 있다고 믿는 민담유형, 그렇기에 전승력이 가장 강한 설화는 효행설화라는 것을 말해준다. 필자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에서 시행한 한국설화유형 분류체계 수립과 관련된 작업에 참여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무척 흥미롭게 여기게 되었다. 게다가 연구자들이 분류항목을 나누어 맡게 되고 필자가 ‘바르고 그르기’ 항목을 책임지게 되자 구체적으로 유형을 확정하고 분류하면서 효

행설화와 열녀설화를 특히 눈여겨 보았다. 그리하여 앞서 열녀설화를 먼저 정리하였고<sup>1)</sup> 이번에는 효행설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효행설화가 일순위라고하면서 열녀담 연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작업을 미룬 것은 까닭이 있다. 그것은 효행설화가 유형도 다양하고 각편 숫자도 엄청나기에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상당히 방대하면서, 그러나 실제 유형내부에 들어가서는 일견 보기에 깊은 의미망을 지니지 않은 듯이, 단순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선 연구자들도 효행설화에 일단 주목은 하였으나 대부분 효행설화의 전체를 조망하지는 않고, 부분적인 자료를 유형별<sup>2)</sup>로 혹은 지역별<sup>3)</sup>로 분류하거나, 특정유형의 의미망을 밝히는 데<sup>4)</sup>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간의 연구에서 제일 많이 다루어진 효행설화는 ‘자식 죽여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형’ ‘부모 득병의 치료효행담’ ‘효자 호랑이 설화’<sup>5)</sup> 등이다. 그렇게 된 원인은 효행설화 전반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자료도 엄청나지만 구조가 단순하고 내용도 뻔하기 때문이다. 즉 이미 다 파악하였다고 전제하고 특수한 유형, 기본유형에서 일탈되었다고 추측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다룬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오늘날 피상적으로 관찰하기에는 한국 설화의 연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점검해 보면 그간의 연구는 한정된 자료를 놓고 대체로 미시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 지역출신 전공자에 의해 녹음기로 채록되고 구술 정리된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로 약칭 할 것임) 1차분이 완간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비설화 자료들을 총망라한 유형분류체계가 수립된 이 시점에서 설화유형을 크게 놓고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즉 상위유형별로 전체적인 자료의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위유형 전체의 구도를 정확히 파악할 때, 유형별 성격도 확실해지고 그다음으로 부분의 문제, 즉 변이유형이나 특수한 유형의 성격도

1) 필자, “구비열녀설화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9집, 한국고전문학회, 1994.

2) 최운식, “효행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의식,” 『한국·일본의 설화연구』, 인학대출판부, 1987 ; 강덕희, “한국구전효행설화의 연구,” 『국어국문학』 제21집, 부산대국어국문학과, 1983 ; 유증선, “설화에 나타난 효행사상,” 『장암지헌영선생 화갑기념논총』, 호서문화사, 1971.

3) 정인모, “경남지방 효행설화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93.

4) 최래옥, “한국효행설화의 성격연구—효자호랑이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1집, 1977 ; 강진옥,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I—손순매아의 의미,” 『국어국문학』 93호, 국어국문학회, 1985 ; 강진옥, “효자호랑이 설화에 나타나는 효 관념,” 『민속연구』 1집,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1.

5) 유형 명칭은 기존연구의 명칭을 따른 것이다.

확연히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도 효행설화 전체를 검토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게 느껴졌었다. 그래서 일단 비슷한 성격이면서도 또다른 열녀설화를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그와는 좀 다른 방식이지만 효행설화 전체가 담고 있는 의미망에 접근하려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가장 전승력이 강했던 효행에 얽힌 이야기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으며, 어떤 조건이 이 이야기들을 매듭짓고 풀어가고 있는지, 효의 전반적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밝혀 보고자 한다.

## 2. 자료와 구성요소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 부록 『한국설화유형분류집』에 수록된 분류표에 따라 효와 불효에 얽힌 설화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11. 어려운 사정 있어도 가족사이의 바른도리 지키기.
  - 411-1. 자기를 해치려는 부모에게 효도하기.
  - 411-2. 계모를 내치지 못하게 하는 효자
  - 411-3. 부모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효자.
  - 411-4. 딸의 불효, 며느리의 효도.
  - 411-5.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양아들이 효도하기).
  - 411-6. 늙은 시부모 양기 돋운 며느리 (늙은 시부모가 성행위 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 411-7. 어려운 사정 있어도 효도하기 (그밖의 여러 가지 효행이야기 포괄).
- 413. 바른 행실 지키니 이적 일어나기.
  - 413-1. 계절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한 효자.
  - 413-2. 정성이 지극해서 부모 병 고친 효자 (천년두골에 쌍용수, 지령이 반찬)
  - 413-3. 자기 살을 베어 부명을 회생시킨 효자.
  - 413-4. 시어머니 지극히 모셔 일어난 이적.
  - 413-5. 개가지지 않은 며느리를 도운 호랑이.
  - 413-6. 호랑이의 도움 받은 효자.
  - 413-7. 효자의 결백 밝힌 이적.
  - 413-8. 효성 덕분에 먹고 살 방도 얻기.
  - 413-9. 하늘이 아는 효성 (효성으로 이적이 일어난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야기).

421. 바른 행실 하다가 그릇되기.  
421-2. 홀아버지 모신 불효 (효자가 악처만 못하다).  
421-12. 청개구리의 불효.  
421-13. 효자 흉내내다 꾸지람 듣기.
423. 어찌다 보니 그릇되기.  
423-3. 게다리를 뜯고 먹지 (효자의 실수).
432. 그른 행실 바르게 고치기.  
432-1. 불효를 이용해 효도하게 하기 (부모를 살찌워 팔거나 죽이려한 이야기).  
432-2. 불효를 효도라고 칭찬하기.  
432-3. 불효자 효자되게 하기 (부모를 때리는 불효자 효자된 이야기 포함).
433. 그릇된 방법으로 바른 행실 지키기.  
433-1. 자식 죽여서 부모 받들기 (희생효 이야기).  
433-2. 어머니에게 효도, 아버지에게 불효(효불효교 이야기).  
433-4. 잘못지낸 제사로 효도하기 (제사가 법도에 어긋난 것이면 다 포함된다).  
433-5. 무리한 명령으로 자식 효성 확인하기.
434. 그릇된 방법으로 좋은 결과 얻기.  
434-6. 친정의 명당을 차지한 딸 (밤새 물을 길어다 붓는다).  
434-7. 친정을 속여서 부자된 딸.
435. 그릇된 방법으로 남녀관계 온전하게 하기.  
435-6. 늙은이에게 배필 얻어주기.
436. 그릇된 가족관계 바로 잡기.  
436-6. 불효한 양자 내쫓고 만득자 얻기.
441. 가족관계 그르치는 악행.  
441-13. 불효해서 재앙받기.  
441-14. 친정아버지 박대한 딸의 거짓말.

위에 열거한 제목들이 효, 불효와 관련된 설화유형들이다. 유형분류체계 안에서 효행설화와 인접해 있고 유형명칭이 효행설화이더라도 이야기의 핵심이 효행이 아닌 유형, 예를 들면 '432-5 너무 심한 시집살이 고쳐놓기'나 『대계』에 수집

된 각편이 없는 유형, 예를 들면 ‘433-3 아버지 유훈지켜 어머니 종아리 때리는 아들’, ‘434-2 부모 저버리고 신안심 이룩하기’ 등은 일단 논의에서 제외시켰다. 『대계』의 수록된 자료는 남한 전지역에 걸친 조사자료이므로, 임석재 편 『한국구전설화』를 통하여 북한지역의 효행설화 자료도 살펴 보았다.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강원도 등6)의 설화를 수록한 1집부터 4집까지에서 23편의 효행설화를 찾을 수 있었는데 『한국설화유형분류표』의 체계를 거스르는 유형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유형체계에 따라 분류해서 같이 다루기로 하겠다.

서른 세 가지의 유형을 포괄하는 효행설화의 내용을 면밀히 읽어 나가면 그 안에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효행설화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가정 내부이고 중심인물은 가족으로 모름 지기 친족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담고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먼저 인물간의 관계를 통하여 이야기의 구조를 탐색해 보기로 한다.

### 3. 가족관계라는 인물구도

효행설화는 철저하게 가정을 배경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 
- 6) 『임석재 전집』에 수록된 효행설화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전집1 156면 호랑이와 의형제 맺은 사람
    - 312면 미련한 자의 기지
  - 전집2 34면 효자와 호랑이
    - 35면 효자와 천도
    - 36면 효자와 겨울잉어
    - 36면 아들을 묻으려다 보물을 얻은 효자
    - 37면 효부
    - 37면 아들을 삶아서 약으로 쓴 효자
    - 38면 효자 흉내내다가
    - 39면 효녀 노릇 하려다가
    - 64,74,75,77면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 잡은 아들(4편)
    - 304면 이무기 잡은 효자
  - 전집3 47면 청개구리 울음소리
    - 293면 효자가 얻은 보물
    - 300면 집안 화목의 비결
  - 전집4 74면 청개구리 울음소리
    - 138면 업효자
    - 268면 효부
    - 269면 출천지 효자
    - 125면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

효행은 그 주체는 자식이고 대상은 부모가 되는데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모가 등장하고 자식은 아들(큰아들, 작은아들), 딸(큰딸, 작은딸, 막내딸), 며느리, 양자, 사위 등이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관계이다. 물론 가부장적 가족구조이니까 그렇다. 앞서 효와 불효에 얽힌 설화유형을 모두 제시하였는데 크게 보자면 효성으로 정리되는 이야기가 80% 이상이고 불효자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

그런데 구비설화 자료에서 효행의 주체는 우선 아들이지만 그 대상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로 설정된 각편이 훨씬 더 많다.<sup>7)</sup> '411-2 계모를 내치지 못하게 하는 효자', '413-4 시어머니 지극히 모셔 일어난 이적' 유형은 당연히 대상이 모친이고 그밖에 '411-1 자기를 해치려는 부모에게 효도하기', '411-7 어려운 사정 있어도 효도하기', '413-1 계절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한 효자', '413-2 정성이 지극해서 부모 병 고친 효자', '413-3 자기살을 베어 부명을 회생시킨 효자' 등 가장 기본적인 효행설화라고 할 수 있는 유형들에서 각편마다 어머니 쪽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조선시대 역사 기록에서 효행을 표상한 실제 문서에 효의 대상이 주로 아버지인 사실과 이조 후기 문헌설화에 실려 있는 효행설화에서 효의 대상이 전적으로 아버지인 사실과는 사뭇 다르다.<sup>8)</sup> 그 까닭은 아마도 어머니쪽(여자쪽)이 아버지(남자쪽)보다 좀 더 오래 산다는 실제적인 조건과도 상관이 있겠고, 게다가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혼자 되었을때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어머니가 혼자된 경우에는 거의다 홀로 말년을 보내면서 아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또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장 각별한 관계, 끈끈한 관계인 모자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들 다음으로 효행의 중심에는 양아들이 있다. '411-5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411-7 어려운 사정 있어도 효도하기', '433-1 자식 죽어서 부모 받들기' 등의 유형에서 수양으로 맺어진 부자관계가 보이는데, 양부가 술에 취해 자다가 실수로 손자를 눌러 죽이기까지 하여도 양자부부는 양부를 지성으로 섬긴다. 이때 양아들의 반대편에는 친딸이 놓이게 된다. 그러나 양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는데 '436-6 불효한 양자 내쫓고 만득자 얻기' 유형에서는 부친이 늙어서 집안의 대소사와 관련된 전권을 양자에게 물려주고 나니 양자가 전과는 태도를 바꾸어

7) 효의 주체와 대상은 필자가 각편마다 모두 조사 정리한 자료에 의거한다.

8) 문헌소재 효행설화는 계속되는 작업으로 정리될 계획이다.

불효하므로 부친이 늦게라도 친아들을 얻고 양자를 내쫓는다. 한편 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 효행설화는 아니지만 '436-2 친자식의 제사밥 먹는 혼령'이라는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친자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형의 다양성이나 채록된 양으로 볼 때나 양자에 대한 전승자들의 태도는 지극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고, 양자의 대척점에 친딸이 놓인다는 사실은 강한 남아선호사상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양아들에 못지않게 효성의 주체가 되는 인물이 며느리이다. '411-4 딸의 불효, 며느리의 효도', '411-6 늙은 시부모 양기 돌은 며느리', '413-4 시어머니 지극히 모셔 일어난 이적', '413-5 개가지지 않은 며느리를 도운 호랑이', '413-2 정성이 지극해서 부모 병 고친 효자(지렁이 반찬)' 등의 다양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효행설화 유형에서 며느리의 효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며느리는 딸과 대비되는데 전통사회에서 출가외인인 딸은 아무리 혈연관계이지만 무위한 존재이고 남이지만 인륜과 도리로 묶여 있는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한다. 더구나 이 설화들 가운데는 남편을 잃고 혼자인 며느리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녀들은 열녀이면서 효부인 그 시대의 가장 바람직한 여인상을 구현하고 있다.

딸은 부모와 친자관계이면서도 효행설화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인물형이다. 효행의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411-4 딸의 불효, 며느리의 효도', '411-5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등의 유형에서 며느리, 양아들 등과 대비되어 불효한 인물쪽에 놓이고 심지어 양아들의 처인 며느리보다도 부모에게는 더 소용 없는 존재로 취급되다가 '434-6 친정의 명당을 차지한 딸 (밤새 물을 길어다 붓는다.)', '434-7 친정을 속여서 부자된 딸' 유형에 가서는 딸은 부모에게 효심을 발휘하기는 커녕 손해를 끼치는 인물이 되고 만다.

구비설화 자료에서 이렇게 딸이 부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참 특이하다. 물론 효녀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411-7 어려운 사정 있어도 효도하기' 유형에서 '2-9. 248, 효자 신행숙의 효행', '9-3. 611, 효녀 이야기', '413-1 계절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한 효자' 유형의 '3-2. 169, 겨울에 홍시(紅柿) 구한 효녀' '413-3 자기 살을 베어 부모를 회생시킨 효자' 유형의 '6-7. 263, 백일기도와 허벅지 살고기', '7-10. 569, 살을 베어서 병구완을 한 효녀', '413-6 호랑이의 도움받은 효자' 유형의 '3-3. 471, 효녀 이야기' 등에서 효녀가 딸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유형의 비율이나 각편의 양에서나 미미한 정도이고 더구나 딸이 불효의 주체로 설정된 자료와의 균형까지 염두에 둘 때 구비

설화의 세계에서 딸은 전혀 효성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현상은 다각도로 의미가 해석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구조 밑에서 딸은 자라서 출가하면 친정식구들과는 아주 남이 되고, 시가의 일원이 되어 여필중부 해야만하는 삼중지도에 기인하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제로 딸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며느리에 비할 바가 아닐 터인데 이야기의 세계에는 그런 측면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실제에 있어서도 효녀의 행적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조선조 중종 26년(1531년)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신라, 고려, 조선을 합하여 모두 324명의 효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16명이 효녀<sup>9)</sup>이고, 그 후 15세기, 16세기, 17세기로 갈수록 효녀로서 포상된 사례가 전대에 비하여 더 많이 보이고 있다.<sup>10)</sup> 그런데 이들 효녀들의 나이가 13세, 16세 정도이고 물론 출가전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효행설화의 주인공인 딸들과는 사뭇 다르다. 결국 딸들이 발휘한 효성은 이야기에는 미미한 흔적을 남기는데 그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것은 남성중심의 가족제도에서 오는 윤리관과, 대가족제도 안에서 여성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이라는 본질과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효는 가족내부의 문제이고 그 주체는 아들, 양아들, 며느리가 되면서 대상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두드러진다고 정리될 수 있겠다.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도 가족간의 입장과 기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추적해 보기로 하겠다.

#### 4. 가족간의 입장과 역할의 차이

효란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지성과 애정을 이름이다. 우리 민족에게도 아주 먼 옛날, 가족이라는 형태가 형성되면서부터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풍속은 있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른 시기의 효행담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孝女 知恩, 向德舍知割股供親, 孫順埋兒 등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그러나 효성이 강력하면서 필수적인 윤리규범으로 확산되게 된 것은 이씨조선이 건국되고

9) 박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0, 13면.

10) 위의 책, 35면, 119면.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택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충·효·열을 대명제로 하는 삼강오륜이라는 규범은 지극히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제시한다. 군신·부자·부부라는 세가지 인간관계를 축으로 하면서 물론 충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내세우지만 본래 성리학에서는 인애(仁愛)의 확충과정을 부모를 출발점으로 하여 타인(他人), 만물(萬物)의 순으로 등차를 두기 때문에 군신관계보다는 부자관계가 더 일차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sup>11)</sup> 따라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수직적인 불평등한 관계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자식은 자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연로한 후로는 지성으로 봉양하여야 만하도록 틀지워져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주어질 도덕율이 아무리 엄격하다 하여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규범대로만 살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의 세계에서는 효에 얽힌 다양한 삶의 양태를 노정하고 있다.

대가족제도와 가부장제의 장자상속이라는 사회제도에서는 한 가정 안에서 최고의 권위와 권한은 가장, 즉 아버지가 가지게 된다. 가족구성원들은 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존경과 사랑으로 윗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야기 속에서도 효를 행하는 보편적인 주체는 우선 아들이고 대상은 아버지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극한 효심의 발로를 표현하는 '413 바른 행실 지키니 이적 일어나기' 유형군을 비롯한 많은 효행설화 유형들에서 효의 대상이 어머니쪽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해 볼 만한 현상이다.

가정사의 중심이 장자에게 있으므로 부모 생전이나 사후에나 효성의 일차적인 책임은 큰아들에게 있다. 그러나 '413-2 정성이 지극해서 부모 병 고친 효자 (천년두골에 쌍용수, 지렁이 반찬)' 유형은 가장 큰 효행은 반드시 큰아들이나 뛰어난 재주를 가진 자식이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부모를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 즉 효심을 가진 자식이 행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화태 혹은 편작, 유의태 등으로 나오기도 하는, 명의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큰아들은 어머니의 병세를 보고 그 병의 치유법을 짚어내지만, 그 방법은 구할 수 없는 것—예를 들어 '천년두골에 쌍용수', '십팔계에 봉 한마리'—이어서 쉽게 포기하고 만다. 대신에 소박한 마음씨를 지닌 평범한 작은아들이 어머니 죽기 전에 세상구경이나 시켜드린다고 업고 다니다가 우연히 목마른 어머니께 떠드린 물이 바로 그 명약이어서 병든 노모를 살린다. 또 남편은 가난한 가세를 돌보지 않고 객지로 나돌고, 병든 시모를

11) 한영우, 『조선전기사회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83, 62-64면.

모시던 착한 며느리가 해드린 지렁이국을 먹고 눈 먼 시어머니가 눈을 뜬다. 이런 이야기는 효행의 근본이 장자에게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효행담의 주인공은 역시 아들이고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남아선호사상은 가족중심의 이 설화에 강한 영향을 미쳐서 아들 다음으로는 양자를 효의 주체로 삼는다. 그런데 효행설화에서는 그 주체가 효이건 불효이거나 이야기의 흐름이 며느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참 많다. ‘411-4 딸의 불효, 며느리의 효도’, ‘411-6 늙은 시부모 양기 돌운 며느리’, ‘413-2 정성이 지극해서 부모 병 고친 효자 (지렁이 반찬)’, ‘413-4 시어머니 지극히 모셔 일어난 이적’, ‘413-5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를 도운 호랑이’, ‘432-1 불효를 이용해 효도하게 하기 (부모를 살찌워 팔거나 죽이려 한 이야기)’, ‘432-2 불효를 효도라고 칭찬하기’ 등 많은 유형이 며느리를 주인공으로 전개되고 ‘441-13 불효해서 재앙받기’ 유형도 주인공이 아들, 딸, 며느리 등으로 설정되는데 각편 25편 가운데 13편이 며느리의 불효를 다루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가정내의 여성의 권리는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모든 중요한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으며 여자는 삼종지도에 따라 아버지, 남편, 아들이라는 가장의 뜻을 무조건 따르기만 하도록 교육되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추상적인 관념과는 또 다른 것이어서 가정안의 일상사에서는 여성이 가진 역할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아들 못지않게 며느리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올라 있는 효행사례를 통하여 조선조시대에 특히 가치를 부여한 효행은 “일반적으로 生時에는 부모를 열심히 奉養하고 病이 들면 斷指, 割股, 嘗糞 등으로 정성껏 治癒하고 虎患, 水火災, 倭寇 등의 위기에서 구하거나 원수를 갚으며, 사후에는 朱子家禮에 의하여 喪禮를 치르고 廬墓하는 것이었다.”<sup>12)</sup> 여러 가지 효행사례 가운데서도 효자로서 포상을 받게되는 경우는 평상시에 부모를 지성껏 모시는 것보다 부모가 병이 들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희생하거나, 부모가 죽은 후에 시묘살이를 남달리 한 자식이다. 즉 부모가 특별한 조건에 놓이게 되었고 그 난관을 자식이 어렵게 통과한 사례이다. 그러나 구비전승 속에서는 특이한 사태에 못지않게 평범한 일상적 생활이 풍부하게 제시되고 그런 민담유형의 중심에 며느리가 놓이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나날은 집안에서 먹고 입고 자는 일상적인 일들로 짜여져 있고 이같은 의식주를 담당하는 역할은 일차적으로 한 집안의 주부인 며느리가 맡

12) 박주, 앞의 책, 13면.

고 있다. 남편이 밖에 나가 생업에 종사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아내가 전가족을 위해 살림을 꾸린다. 이같은 여성의 역할로 인하여 실제의 삶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담고 있는 구비설화자료에서 부모가 자손으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하는 관건은 며느리에게 달려 있고, 효행담의 주인공으로서의 며느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411-4 딸의 불효, 며느리의 효도’에서 자기속으로 낳은 딸은 부모를 소홀이 대하는 반면에 생판 남인 며느리, 더우기 양아들의 며느리까지도 따뜻한 밥을 지어 올리고 더러워진 옷을 빨아들이면서 시부모를 공대한다. 딸은 이미 남의 식구가 되었고 사회구조적으로 그녀는 시가의 살림을 책임맡고 자신의 시부모를 섬기도록 역할지위였기 때문에 친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며느리보다도 불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신에 며느리는 자신의 역할이 시부모를 받들도록 자리매김되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411-6 늙은 시부모 양기 돋운 며느리’, ‘413-2 정성이 지극해서 부모 병 고친 효자(지렁이 반찬)’ 유형에서는 그와 같은 며느리의 역할이 아들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밭에서 남편과 같이 농사일을 거들던 며느리가 점심 마련을 위해 잠시 집에 들렀는데 때마침 시부모가 방안에서 동침을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기운이 모자라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양을 보고는 없는 살림에도 주저치 않고 닭을 한 마리 고아서 두 노인네를 대접한다. 밭에서 일을 계속하던 남편은 점심이 늦어지자 배가 몹시 고파서 아내가 늦은 점심을 해서 머리에 이고 허겁지겁 돌아오자 때려줄 작정이었는데 사태를 알고는 아내에게 백 번의 절을 하며 감사를 표한다. 남편이 집을 떠나 있거나 혹은 홀로 되어 눈 먼 시어머니를 모시는 착한 며느리는 시모에게 너무 해 드릴 것이 없어서 지렁이로 국을 끓여 들이고, 항상 그 국을 맛나게 먹은 시모는 아들이 돌아오면 보여주려고 국건더기를 감추어 놓았는데 아들이 보고는 ‘지렁이’ 하는 소리에 놀라 눈을 뜬다. 두 이야기 모두 남편이 바깥일에 매달리는 동안에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섬기는 역할을 맡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며느리의 효심이 지극할 때 하늘까지도 감동하는 것이다. ‘413-4 시어머니 지극히 모셔 일어난 이적’, ‘413-5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를 도운 호랑이’에서 며느리의 효성은 빛을 발한다. 매우 가난하고, 각편에 따라 남편을 잃고 혼자인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끼니를 지어드리고 싶어도 양식을 구할 길이 전혀 없다. 어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가 보리를 주워 먹고는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싸놓은

똥을 주어다 잘 씻어 밥을 지어서는 혹시나 해서 자신이 먼저 한 숟갈 먹어보고 시어머니께 드린다. 처절하기까지한 며느리의 효성은 ‘항시 먹을 식량될 만큼의 양식이 나오는 궤’ 혹은 ‘황금’으로 보상을 받는데, ‘7-4. 122, 기름주머니 집어준 효부’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 이 모든 보상은 기적이 아니라 정성의 힘이다. ‘413-5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를 도운 호랑이’ 유형은 효와 열을 아울러 갖춘 가장 규범적인 여인의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자식도 없이 일찍 홀로 된 며느리이고 섬기는 대상은 대부분이 시아버지이다. 친정에서는 딸의 처지가 너무도 가없어서 개가를 시키려고 부모의 거짓 부음을 보내어 딸을 오게 한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며칠간 시부가 먹을 끼니를 챙겨놓고 당부를 하고는 집을 나선다. 친정에 와서야 사태를 파악한 젊은 과수는 밤에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서고 갈길을 몰라 애대우는 그녀를 호랑이가 나타나 업어다 준다. 무사히 집에 당도한 그녀는 개를 한 마리 주어 호랑이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얼마후 그 호랑이가 어린아이를 하나 물어다 주어서 과수는 아들을 키우며 시부를 끝까지 잘 섬긴다. 이 유형은 효열이라는 윤리의식을 지극히 교양하면서도 문학적 형상화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빼어난 설화임을 앞선 논의<sup>13)</sup>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이 유형이 말하는 것처럼 자식이라는 끈도 없이 홀로 된 젊은 며느리까지도 어쩌면 가장 먼 관계인 시아버지께 지극한 효성을 바치는 것은 그만큼 며느리가 가지는 가정안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깊은 막내 며느리가 불효한 남편 혹은 시숙, 동서 등을 지혜를 발휘해서 버릇을 길들이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변화시키기도 한다.<sup>14)</sup>

그같은 며느리의 기능은 불효자의 이야기에든 마찬가지로 반영되고 있다. ‘421 바른 행실하다가 그릇되기’나 ‘423 어쩌다 보니 그릇되기’에 소속된 유형이 아니고 ‘441 가족관계 그릇치는 악행’에 속하는 말하자면 가장 못된 불효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441-13 불효해서 재앙받기’ 유형에서도 며느리는 수다하게 불효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시댁의 땅을 뺏아내고, 시어머니를 고려장 지내고, 혹은 절구통으로 죽이기까지 한다. 가정안에서 부모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며느리의 역할이 워낙 중요하기에 효를 주제로 하거나 불효를 주제로 하거나 부모를 섬기는 사건의 중심에는 며느리가 빈번하게 놓이게

13) 필자, 앞의 책, 56면.

14) 5-2. 568면, 불효남편 길들이기.  
6-4. 231면, 막내 며느리의 지혜.

되는 것이다.

결국 집안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 즉 부모가 효성을 받느냐 못받느냐 하는 문제는 가족간의 역할과 기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파악되는데 그같은 관점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432-1 불효를 이용해 효도하게 하기 (부모를 살찌워 팔거나 죽이려한 이야기)' 유형이다. 이야기의 발단은 아들에게서 시작되지만 불효의 초점은 며느리에게 있다. 시어머니는 죽고 시부는 혼자되어 있는데 나이도 많고 세상이 시들해서 집안일도 거들지 않고 무심하게 지낸다.<sup>15)</sup> 아들은 효심이 있으나 며느리는 이런 시부가 아주 못마땅해서 끼니도 입성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이 걱정을 묘안을 짜낸다. 시장에 다녀온 남편이 아내에게 잘 먹고 입혀서 건강해 보이는 노인을 아들이 데리고 나와 팔고 있더라는 광경을 전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살찌워 팔자고 제안한다. 시아버지가 몹서리가 나게 싫던 참에 며느리는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 날부터 며느리는 시부를 살찌우려고 밤, 고구마, 고기, 콩죽 (각편마다 다양한 먹을꺼리가 나온다.) 등을 먹이고 옷에 고운 때가 묻을 만하면 갈아 입혀가면서 시부를 공양한다. 이렇게 며느리가 알뜰하게 대접을 하니 시부의 태도 역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전과는 달리 마당도 쓸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에 나간 사이에 쇠죽도 끓이고 마계풀도 파서 넣고 손자도 돌보아주고 식전에 며느리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의 재도 쳐내어준다. 이렇게 일 년이 흘러서 처음 아들이 약속했던 선달 그믐날이 돌아와 아내에게 아버지를 팔자고 짐짓 마음을 떠보니 아내는 시아버지가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데 만일 시부가 없다면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된다고 펄쩍 뛰며 반대한다.

물론 화자는 아들의 효심과 지혜를 칭찬하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지만 결국 가족공동체라는 관점에 시각을 맞춘다면 가족간의 역할과 기능이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요건이 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노정하는 것이다. 이 유형에서 가족구성에는 항시 시어머니는 없고, 홀시아버지가 등장한다. 우리 옛말에 며느리를 놓고 '홀시아버지를 모실래 구슬을 서말 켈래' 혹은 '홀시아버지를 모실래 바람벽(담벽)을 길래' 하는 문답이 있는 것처럼 시부모가운데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뜨고 아버지만 남았을 때, 특히 그러다가 연로해지고 아무 일도 안하게 되어 집안에 아

15) "고마 대접도 올케 모하고 의복도 올케 안주고 이르이께내, 만날 고마 집이 들었어 꿈쩍도 아 하고 고만 머 까짓거 일 거들께라고 아 한다 말이래. 까짓 내 신세가 이른 게 해 머하노' 카고 이래 있는 주(중)인데." 『대계』 7-9, 1037면.

무런 도움이 안되면서 부양만을 요구할 때 그 가정안에서 며느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역할은 매우 힘겨워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야기에서 며느리는 시아버지라면 몹서리를 치고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며느리와 시부의 관계는 앞서 언급한 지극한 효심을 담은 이야기들의 주체와 상대역이 주로 아들과 어머니로 설정되고 있는 현상과 인물의 관계망에서 대비될 수 있다. 어머니들은 홀로 되고 늙어서까지도 스스로의 앞가림을 챙기고 가사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에 가정안에서 일정 부분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경우는 그런 역할이 어렵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서 '432-1'과 같은 이야기를 낳게 한다.

이와 같은 며느리의 기능을 부모쪽에서 잘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432-2 불효를 효도라고 칭찬하기' 유형이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며느리의 봉양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의 노인이 며느리의 불효를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짐짓 이웃에게 며느리가 무척 잘하고 있다고 소문을 내어서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혹은 마음을 바꾸어 시부를 잘 섬기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전통사회안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미약하였으나 실제 가정사에서 차지하는 주부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구비전승의 자료가 생생하게 노정하는 바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는 딸이 차지하는 친정부모를 향한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사위는 거론조차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효행설화는 가정을 배경으로 가족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초점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부모의 입장과 자식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진술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효행설화 유형군 가운데 대부분의 유형들은 이야기를 부모의 입장에서 서술한다. 이것은 효성이라는 행위가 칭송하고 고양하여야만 될 가치이고, 주로 받는 쪽에서 더 관심이 크고 실제 자료의 제보자들이 40대 이상이고 특히 60~70대에 몰려 있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효행을 칭송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부모의 입장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411-3 부모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효자', '433-5 무리한 명령으로 자식 효성 확인하기' 같은 유형들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난한 형편에도 이밥(쌀밥)을 먹고 싶다고 조르고, 추운 겨울날 마당에 눈을 깔고 싶다고 나서고 아들에게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고 명하면서 아들의 효심을 확인한다. 물론 아들은 군소리 없이 아버지의 명에 따른다.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한 결과 결국은 마음이 편해야 제일 편하다는 데 귀결된다.

아들과 며느리가 지극한 효심을 지녀서 부친의 뜻을 다 받든다 하여도 아버지

의 마음은 또 다르다. '435-6 늙은이에게 배필 얻어주기', '421-2 홀아버지 모신 불효' 이야기에서 아버지를 지성껏 섬겨 인근에서 칭찬이 자자한 효자 아들은 신관사또 앞에 나아가 상 대신에 매를 얻어맞고, 돌아와 아버지의 반응을 접하고는 아연실색한다. 아버지의 대답은 '신관이 명관이구나'인데, 이것은 악처가 효자보다 낫다는 생각의 표출이다. 이들 이야기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효성의 극대치가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으로 토로되면서 그러나 자식이 아무리 잘한들 아내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는 내심이 드러난다. 자식이 부모에게 바치는 성의, 즉 효성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분명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응하는 자식쪽의 입장이 '421-13 효자 흉내내다 꾸지람 듣기' 유형에서 진솔하게 토로된다. 나이가 들도록 부모에게 불효하였던 아들이 어떤 계기를 접하고는 마음을 바꾸어 이제부터는 부모님께 잘 하려고 작심한다. 그러나 갑자기 변화한 아들의 태도를 부모쪽에서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해서 아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예화를 들면 겨울날 아침 일찍 일어난 아들이 아버지가 일어나 밤새 벗어놓은 옷을 입으시려면 냉기가 차가울 터이니 미리 옷을 입어서 덮혀 놓았다 드리려고 하는데 잠을 깬 아버지가 영문도 모른 채 애비웃은 왜 입고 있느냐고 야단을 치면서 아들을 쥐어박는다. 결국 화자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구, 부모가 잘해야 효자가 나는 거지……"<sup>16)</sup> 하면서 철저히 자식의 입장에서 효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토대로 형성되는 효성은 부모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치있는 것이고 자식에게는 어려운 것이면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절대선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가족이라는 인물간의 관계망을 토대로 하는 효성이라는 덕행이 어떻게 발휘되고 귀결되는지 또한 어떠한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지를 이야기의 서사전개 과정을 따라 추적해 보기로 하겠다

## 5. 보상의 문제와 현실적 세계관

효행담이라는 상위유형 전체를 놓고 많은 유형들을 포괄하는 서사진행 단계를

16) 1-2, 416면, 효자노릇 ; 1-6, 137면, 효자흉내 ; 1-7, 427면, 효자 되는 법 ; 3-3, 451면, 부모가 잘해야 효자가 나는 법 ; 4-1, 69면, 효자노릇 ; 6-11, 135면, 효자는 효부에게 난다 ; 7-2, 663면, 효자가 되려는 아들 ; 7-16, 109면, 반상의 차이 ; 8-3, 284면, 효자와 불효자.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로는 ‘환경의 제시’ 부분이다. 서두에서 가족관계, 집안형편 등이 설명되고 그 다음에는 ‘장애’ 즉 난관이 제기되는데 구비설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려움은 첫째 ‘가난’ 이고 그 다음이 ‘득병’ 이며 그밖에는 ‘독거(獨居)’ 즉 양친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환쪽만 남는 경우, 또 ‘양친의 별세 (시묘와 관련된 일)’ 등이다. 이렇게 난관이 앞에 놓이게 되면 자식의 ‘효행(불효행)’이 발휘된다.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부양, 병의 치유, 홀로된 부친(모친)에게 새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고, 혹은 불효의 결과 양친이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그 결과로 주인공은 보상을 받거나 재앙을 입는다. 설명은 제외하고 단계만을 요약하면 환경의 제시-장애(난관)-효행(불효행)-효과(부양, 치유, 제사, 부모의 재혼, 부모의 죽음)-결과(보상, 재앙)의 순이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역시기록에 실재하는 효행사례는 평시에 봉양과 병구환 이외에 호환, 수화재, 왜구 등의 위기에서 부모를 구하거나 원수를 갚으며 특히 부모 사후에 시묘가 가장 많이 포상되었음에 비하여, 구비전승 자료에서는 가난한 환경에서의 공양과 치병 그 중에서도 부양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구비설화 전승자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가 더할 나위 없이 절박하고 중대한 문제였던 현실에 기인하고 있음이다. 그러면서 효행설화의 서사진행 과정에서 다른 설화유형군들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특징은 보상의 단락이 여타 다른 이야기에 비할 때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한국민담의 성격이 주인공의 낙관적 품성과 행복한 결말로 집약되고 특히 그런 행운의 이야기가 한국설화유형표 가운데 3.속이고 속기, 4.바르고 그르기, 7.잘되고 못되기 부분에 몰려있음은 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략담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3.속이고 속기는 주인공이 작은 것이나마 잃어버리거나 따내는 ‘승부’가 관건이고 행운담이라고 부를 수 있는 7.잘되고 못되기에는 뜻밖의 행운으로 장가도 들고 재물도 얻는다. 그런데 4.바르고 그르기 부분은 선행으로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결말인데 열녀담이 열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성패와 포상쪽에 역점이 있다면, 효행담은 효행의 결과와 보상쪽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판단된다.

구비효행설화에서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금, 노다지, 산삼, 황금, 논문서, 엽진, (마효자의) 눈에 누리가 내리지 않는다(이적) 등 결국 가난한 형편의 효자가 부모를 지성으로 섬겼더니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효자비는 아주 드물게 이야기될 뿐이다. 조선조시대 국가에서 효행자에게 실시한 포상에는 旌門, 旌閭,



復戶, 旌門復戶, 賞職, 加資, 賞物, 免役, 給復, 錄用子孫, 免賤 등이 있고 포상내용의 빈도를 보면 대체로 旌門, 旌閭, 復戶가 가장 많았다.<sup>17)</sup> 그런데 설화에서는 효행덕분에 먹고 살 방도가 마련되었다는 식이고 정문에는 별 관심이 없다.

구비열녀설화와 비교하면 주자학적 윤리규범에 의한 명분을 따지고 도리를 지키는 선행이라는 성격은 동일하지만 열녀담에서 정절을 지킨 여인에게 돌아온 것은 세간의 칭송과 열녀문이라면 효행담의 주인공은 부모를 어렵사리 살린 끝에 더불어 잘살게 되는, 먹고사는 걱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간관계가 가지는 본질적 속성과 사회경제적인 구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차이이다. 우선 쉽게 열녀설화와 대비하면서 곡절을 풀어간다면 열녀설화는 기본적으로 남녀간의 문제가 핵심이고 효행설화는 부자간의 문제가 핵심이다. 그런데 앞선 연구<sup>18)</sup>에서 지적하였듯이 열은 남녀간의 지극히 일방적인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희생이지만 삼강의 윤리에 의해 교육되기 전에도 자연애에 바탕을 둔, 한 남자를 향한 한 여성의 지순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발로될 수 있었다. 반면에 부자관계에서는 부모를 향한 자식의 효성을 일방적으로 강요된 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무런 능력도 경험도 없는 미지의 상태에서 부모의 거의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보살핌에 의해 길러진다.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베푼다. 자식에게는 입에 든 것을 삼키지 않고 뱉어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바로 부모 마음이다. 세월이 가면 이렇게 기른 자식은 어른이 되고 부모는 늙는다. 부모가 더 이상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없고 무능력해진 뒤로는 전적으로 자식에게 노후를 의탁할 수밖에 없다. 노년을 따로 준비할 수 없던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효성은 가장 중요한 오륜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만큼이나 어려운 실천이었다. 사랑의 속성이 내리사랑은 쉬워도 치사랑은 어려워져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는 아무 조건없이 무한정 사랑을 쏟아 붓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부모에게 되갚아야 하는 애정은 아주 당연한 것이어서 부자관계의 도리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것이나, 실제 부자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의 보답이 결코 쉽지가 않다. 대신에 자식은 다시 부모가 되어 제자식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17) 박주, 앞의 책, 222면.

18) 필자, 앞의 책.

지로 무한정의 사랑을 베푼다. 이와 같은 효성이 가지는 속성 때문에 효를 주제로 하는 설화에서는 유난히 보상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즉 치사랑은 실제로 매우 어려우므로 대신에 보상이라는 반대급부를 내거는 것이다. 효성의 실천적 어려움이 보상으로 대상되고 있다는 필자의 견해는 조선조시대의 많은 역사 기록에서 효행이 포상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거둬지는 비판론을 통해서도 보완될 수 있다. 여러 사관과 식자들이 효행이 점점 형식적인 면으로 흘러 폐단이 적지 않고 포상을 목적으로 거짓 효행을 행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sup>19)</sup>

반면에 불효하는 자식에게는 재앙이 돌아온다. ‘441-13 불효해서 재앙받기’ 유형을 살펴보면 시어머니를 죽인 며느리는 몰매를 맞아 죽기도 하고, 벼락을 맞아 죽기도 하며, 부모에게 몹시한 자식은 거지가 되고, 소나 독사로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시련은 자식이 아버지를 박대해서 아버지가 가출한 이후로 아들을 낳으면 죽는다는 불행이다.<sup>20)</sup> 더 나아가서 어머니가 손자를 죽게 하였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생매장하였더니 날벼락이 떨어지기도 한다.<sup>21)</sup> 불효한 자식에게는 그 별로 재앙이 닥쳐오는데 재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일은 자신의 자식이 죽는 일이다. 여기서 부자관계와 효의 본질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다. ‘불효해서 재앙받기’ 유형에서 불효라는 행위의 주체는 아들이고 대상은 아버지이다. 그런데 주인공인 아들은 자신의 아들에게는 아버지이다. 즉 주인공은 아들이면서 아버지인 양자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아버지를 박대한 대가로 아들을 잃는다는 응보는 부모와 자식 중 누가 중하나 하는 물음에의 대답이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가는 사랑은 물흐르듯이 자연스러웠지만 섬겨야만되는 자신의 부모를 향한 사랑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같은 이율배반적인 주인공의 입장을 함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19) “명종 10년 (1555) 4월에 사관이 논평하기를 …… 말세에 거짓이 늘어나 속속이 야박해지고 인심이 교활하여 졌으니 그 가운데에는 본심으로 한것이 아니라 명예를 구하기 위해 효행한 자도 또한 많은 것이다…” 박주, 앞의 책, 75면. 재인용.

“다산 정약용은 그의 〈효자론〉에서 효행의 허위성을 논박하였다. 즉 손가락을 자르고 넓적다리를 베는 따위의 효도,糞을 맞보는 것, 喪을 지나치게 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평, 잉어, 노루, 자라, 눈 속의 죽순 등을 아버지와 어미에게 찾아 구해드리는 것 등의 행실은 예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부모를 빙자하여 명망을 구하고 요역을 도피하여 간사한 말을 꾸며서 임금의 속이는 자들이라고 보았다.” 박주, 앞의 책, 223면. 재인용.

20) 5-1, 110면. 산 조상 박대한 불효자가 아버지를 못만나다.

21) 7-7, 593면. 벼락 맞은 불효자.

‘433-1 자식 죽여서 부모 받들기’ 유형이다. 희생효라고도 지칭하는 이 이야기는 손순매아유형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구비전승자료에는 동자삼, 효감호, 손순매아 등의 세 가지 하위유형이 있고 채록된 각편 수도 여타의 다른 유형에 비할 때 압도적으로 많다.<sup>22)</sup> 그만큼 전승력이 강했다는 증거가 되겠다. 하위유형 중에서는 동자삼 이야기가 제일 많이 전승된다. 아버지의 병치료를 위해 아들의 목숨이 요구되고 부부는 아버지를 살리는 쪽을 택한다. 부부의 효심에 감동한 산신이 동삼(산삼)을 보내주고 아들은 죽지 않는다. 자식과 부모라는 양자의 입장을 공유한 주인공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자연스러운 애정보다는 인륜의 도리쪽을 택한 인물에게 행복한 결말을 안겨준다. 구비전승에서는 손순매아보다 효감호 이야기가 더 활발하게 유통되었는데 늙은 시부대신에 아기를 던져 호환으로부터 부모를 구한 며느리에게 돌아온 것은 아들이 살아돌아온 기쁨과 함께 엄청난 보상이다. 당연히 죽은 줄로만 여겼던 아들은 며느리의 깊은 효심에 감동한 호랑이에 의해 부잣집 나락, 혹은 노적거리 위에서 잠자고 있고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게된 부자는 산신의 지시로 여기고 효부에게 논섬지기를 건넨다. 구전되는 손순매아 유형은 유사의 기록과 큰 차이가 없으나 보상의 부분이 석종과 그 소리 등으로 추상화되기 보다는 후한상, 토지, 금독아지, 백미 오십 석 등 다분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자식 죽여서 부모 받들기’ 설화는 이처럼 ‘효’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부모 섬김의 어려움을 보상이라는 반대급부로 상쇄하려 하는 것이다. 희생효설화는 중심인물의 번개를 통해서도 자식의 효성을 더욱 더 크게 요구하고 교육한다. 즉 부모를 위해 자식을 바쳐야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항상 그일을 앞에 나서서 이끄는 역할을 며느리가 맡는다.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에도 며느리가 아들을 희생할 것을 결단하고 효감호 설화에서는 홀로 된 며느리가 그러한 주체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어떤 각편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내는 자식을 바쳐 시부를 구하기로 결심한다. 이같은 인물설정은 두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며느리가 가지는 가정안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며느리는 시부에게는 피가 안 섞인 남이여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시부모를 위해 바친다는 희생은 며느리에

22) 같은 성격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411-5 친딸보다 낳은 양아들’, ‘411-7 어려운 사정 있어도 효도하기’ 등의 자료까지를 염두에 두면 자료의 양은 더 증가하게 된다.

게 실로 엄청난 고통이겠고 결단이 그만큼 어렵기에 오히려 며느리를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감으로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 효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교육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그러기에 희생효이야기에서 인물의 변개는 양아들에게까지로 확산되는 것이다. '411-5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유형에서 술김에 양부가 손자를 갈아 죽였는데 양자부부는 어른이 놀라실까 알리지 않고 죽은 아이를 묻는데 그 안에서 생금(노다지)이 나오고 아이가 살아나기도 한다. 결국 이 이야기는 친아들도 아닌 수양아들과 그 며느리에게 아들까지 바쳐가며 아버지를 모실 것을 강요하고 있다. 구비전승의 향유자들한테 효는 엄정하며 철저하게 요구되는 것이어서 희생효 설화에서는 동자삼, 효감호, 손순매아 이야기처럼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해피엔딩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허기가 지거나 혹은 노망을 해서 손자를 닭으로 알고 숲에 넣어 살아죽인 시부모를, 며느리가 씨암닭으로 쓰려고 아껴놓은 마지막 한 마리의 닭을 고아 바치며 봉양하는 데까지 발전한다. 수양자와 그 며느리가 이럴진대 친자식과 그 며느리가 부모에게 어찌할 지는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받드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런 중에도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식을 바치라는 요구는 실제로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늙고 허약해진 뒤 부모는 자식에게 전적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어서 효성이란 결국 가장 절실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이율배반적 모순성을 지니게 되고 그러기에 희생효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전승되어 온 것이다.

효성이 이렇게 인간 삶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어서 구비효행담의 세계는 무척 현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실제 역사에서 효행의 사례와 포상의 빈도중에서 여묘(시묘)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구비설화의 세계에서는 시묘를 핵심으로 하는 설화유형은 찾기 어렵고 '413-6 호랑이의 도움받은 효자'에서 호랑이의 음조를 이야기하면서 시묘살이를 하는 효자가 조금 언급되는 정도이다. 오히려 시묘를 정면으로 다룬 이야기는 '423-3 게다리를 뜯고 먹지' 유형인데 알다시피 탈상을 하루 남겨둔 상제가 게다리가 먹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혹시 누가 올지 모르니 묘소로 올라오는 다리를 뜯어놓고 먹자는 동생(친구)의 충고를 무시하다가 그만 시묘살이를 무사히 마치지 못하고 만다. 게다리와 외다리의 다리를 패러디하면서 시묘살이의 효행담을 우화화하고 있어서 죽은 조상을 받드는 경건함은 찾기 힘들다.

구비효행설화 전승집단의 현실적인 감각은 '432-2 어머니에게 효도, 아버지에게 불효', '433-4 잘못지낸 제사로 효도하기' 유형에서도 흥미롭게 드러난다. 효불효 설화, 복두칠성이 된 내력 등의 제목으로 유명한 앞의 유형은 결국 산 조상이 죽은 조상보다는 더 중하다는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정절과 불륜의 문제로 해석하기에는 이야기의 색깔이 전혀 아닌 것이다. '433-4 잘못지낸 제사로 효도하기' 유형은 죽은 어머니를 마치 산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아들의 태도<sup>23)</sup>와 우스운 아버지의 행동<sup>24)</sup>에서 이미 주자가례라는 식의 예의와 법도에 의한 조상숭배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413 바른 행실 지키니 이적 일어나기' 부분의 성격이 현실적인 감각이라는 지적과는 상치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적이 아니라 지극한 노력의 응답, 즉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413-1 계절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한 효자' 이야기에서 효자는 지극한 정성으로 홍시, 잉어, 죽순 등을 구하는데 이런 사례는 중국에서부터 우리 나라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일어난 일을 토대로 이야기가 형성되었고 심지어 역사기록에서 어느 지역은 추운지방이라 얼음을 깨고 잉어를 얻었고, 어느 지역은 물이 얼지 않아 잉어가 뱃전으로 튀어올랐다고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비효행설화의 세계는 먹고 사는 지극히 일상적인 사건들을 가장 중요한 소재로 삼으면서 자식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 지극히 간절하게 자식편의 효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두 가지 유형의 설화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첨부하여야 하겠다. 하나는 '431-5 불효한다고 쫓아낸 막내딸 효도하기' (이하 '발복설화라고 약칭할 것임) 이고 또 하나는 '621-1 둔갑했다가 사람으로 되돌아 오지 못하기 (효자호랑이형)' 이다. '431-5 발복설화' 유형은 설화유형분류표에서 효행담에 포함시키고 있고, 설화를 문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효행설화로 해석할 만하다. 그렇기에 『대계』에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는 작업에서도 '4. 바로고 그리고' 부분에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앞서 신화, 전설, 민담에 걸친 다양한 하위유형과 문헌의 전거 또 외국의 자료까지를 포함해서 발복설화의 원형을 신화로 추적한 필자로서는 이 설화를 효행담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 발복설화는

23) 아들 장가 보내기를 소원하던 어머니 제사날 젓상앞에 부부가 이불을 덮고 눕는다.

24) 죽은 아내가 제일 좋아하던 것이라고 제물 대신 생기를 내놓는다.

아버지와 세 딸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아버지 덕에 이렇게 잘 사는 것이라고 대답한 큰딸과 둘째딸은 아버지가 가난해져서 도움을 청하자 냉정하게 외면하고, 오히려 내복에 산다고 큰소리치고는 아버지에게 쫓겨나 집을 나가 산속 오두막집에 어미와 둘이 숲을 구우며 살고 있는 총각을 만나 결혼하고 숲굽는 숲막의 이맷돌이 생금인 것을 발견해 부자가 된 막내 딸이 거지가 되어 찾아온 아버지를 모신다. 효행설화를 살펴본 문맥 위에서 본다면 딸도 아버지를 모실 수 있고, 언니라고 해서 더 책임이 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지가 강했던 인물이 부모에게 더 효성스러울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유형을 효행담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와 딸이라는 인물설정, 숲구이와 황금이라는 소재, 그리고 딸이 아버지를 모시는 것으로 처리되는 결말부분 등이 잘 맞지 않는 듯하다.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런 점들이 '발복' 설화는 효행담이 주제가 아니라는 표시도 되겠다. 그렇다면 이제 전승자들의 의미해석의 문제, 그리고 설화연구의 진전으로 본래 유형의 원형적 재구로 성격이 다르게 드러나는 설화유형에 관한 분류의 문제 등은 앞으로 좀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621-1 든갑했다가 사람으로 되돌아 오지 못하기'는 설화분류표에는 '6.오고가기' 즉 변신담에 포함되어 있지만 앞선 연구에서 효행담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기에 꼭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효자 호랑이' 설화는 효행담에 포함시켜 정면으로 거론하지는 않겠다. 효자호랑이 설화는 효행담과 변신담이 혼합되어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설화에게 주인공은 호랑이로 변신하는데 변신의 동기가 어머니의 병구완이므로 효행 때문에 변신한다. 그런데 이야기의 핵심은 효행보다는 변신쪽에 좀 더 비중이 있는 듯하다. 『대계』 22편 가운데 3편이 효행이라는 동기는 없이, 즉 이야기 가운데 효행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호랑이로 변신했다가 사람으로 돌아오는 데 실패하는 변신담만으로 유형이 성립되고 있으며, 호랑이가 되었다가 아내 때문에 사람으로 돌아오는 데 실패하고는 마누라를 물어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효행하려는 애초의 변신동기가 상당히 희석된다. 따라서 설화를 변신설화라고 분류하고 효행담에서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효행이 동기가 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해석한다면 효를 실천하는 데는 그 주체가 아들일지라도 며느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

## 6. 마무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 남자를 아버지로, 한 여자를 어머니로 하고 그들의 자식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한 이성을 맞이하여 부부가 되고 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져 어느덧 그 자신이 부모가 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한 처리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인간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동물적이고 원초적인 지극한 애정이 샘솟는다.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자식을 기른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은 부모를 향해서는 그만큼 아니 그와 비슷한 정도의 사랑을 되돌리기가 어렵다. 여기서 효성에 얽힌 다양한 관계양상이 노정되는 것이다.

전통사회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를 전적으로 자식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와 윤리, 규범 등에서 누누히 부모 섬김을 제일의 덕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효성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지극히 어려운 실천이라는 양면성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꼭 필요하면서도 너무나 어렵다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구비설화의 세계에서 효행설화를 가장 생명력이 강한 이야기로 남게 하였다. 그러면서 역시 구전의 세계는 가장 생생한 삶의 현상들을 담아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구비효행설화는 서른세 가지나 되는 다양한 유형군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을 배경으로 가족간의 관계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이나 문헌소재 효행담과는 다르게 가장 초점이 되는 중심인물은 아들과 어머니이다. 아마도 그런 현상은 여자(어머니)가 남자(아버지)보다 오래 산다는 자연적인 조건, 그리고 어머니는 홀로 된 경우 거의가 재혼하지 않고 전적으로 아들에게 의탁하는 점, 그리고 모자관계라는 각별한 인간관계 등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면서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친딸보다 양아들이 부각되고 가부장제 사회구조와 삼종지도라는 윤리규범으로 인하여 며느리가 딸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면서 가정내의 가족관계에서 파생되는 효성에 얽힌 이야기는 가족간의 기능과 역할에 긴밀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가정안의 여성의 위치는 미약하였으나 실제 생활에서 주부가 차지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여서 그런

역할이 이야기에 생생하게 반영되고 있다. 즉 일상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세세한 가정사에서는 아들보다도 오히려 며느리가 부모에게는 더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어서 며느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효행담의 핵심이 되고 있다.

효행설화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제보자의 성별과 나이도 남녀와 40대부터 80대까지로 넓게 퍼져 있는데 이는 효라는 제재가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자식쪽보다는 부모쪽의 입장에서 진술하는 화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제보자의 연령층이 40대 이상이고 특히 60-70대가 많은 까닭일 것이다.

효행담은 다른 어떤 상위유형보다도 보상이 강조되고 있다. 효행이 시모나 치병보다는 봉양을 위주로 실천되고 있고 효성의 반대급부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다. 그런 점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세계관을 표출한다. 그같은 성격은 유교 경전 가운데 우리 조상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논어』와 『소학』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면 드러나는 차이와도 연결된다. 『논어』에서 강조하는 효행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추상적인 명제이다. 대표적인 구절은 위정(爲政)편의 “오늘날에는 효라고 하면 부모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와 말까지도 다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을 기르는 것과) 무엇으로 구별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즉 살아있을 때는 예로서 섬기고 죽으면 예로서 장사지내고 예로서 제사지내는 것처럼 예를 갖추라는 정신적 차원의 규범을 강조한다.

그러나 『소학』은 좀 다르다. 『소학』의 명륜(明倫)편 명부자지친(明父子之親)조에서는 부모 섬김의 가장 중요한 도리가 봉양으로 이야기되고 의식주의 문제가 거듭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며느리의 역할이 아들과 더불어 계속 언급되고 있어서 공자시대와 주자의 시대라는 시간의 차이가 유교 윤리에 있어서 구체성과 현실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고 파악된다. 이렇진대 민간의 생활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였고 가난 속에서 부모 섬김은 커다란 희생봉사를 요구하였기에, 효행의 어려움을 보상이라는 반대급부로 치환하고 있는 것이다.

효행의 절대적 필요성과 어려움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내는 희생효설화에서 부모를 섬기는 도리는 자식을 희생하는 데까지도 확대되어, 자식이면서 부모인 주인공은 부모를 위하여 자식을 희생하기로 결심하는데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엄청난 보상이었다. 전통사회에서 효행은 어려운 만큼이나 엄정하게 요구된 것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효행설화가 주는 교훈은 말년



을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의탁할 수 없다는 씩씩한 자각이 되겠다.

위낙 방대한 자료를 다루다 보니 논문이 두서가 없고 길어졌다. 계속해서 보완할 작정이고, 뒤이은 작업으로 문헌소재 효행설화의 특성도 따로 정리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 〈자료〉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4, 평민사, 19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8-1988.

### 〈논저〉

강덕희, “한국구전효행설화의 연구,” 『국어국문학』 제1집,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83.

강진옥,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1,” 『국어국문학』 93호, 국어국문학회, 1985.

강진옥, “효자 호랑이 설화에 나타나는 효 관념,” 『민속연구』 제1집, 안동대학 민속학연구소, 1991.

김대숙, “구비열녀설화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9집, 한국고전문학회, 1994.

박 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0.

유증선, “설화에 나타난 효행사상,” 『지헌영선생님화갑기념논총』, 호서문화사, 1991.

정인모, “경남지방 효행설화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93.

최래옥, “한국효행설화의 성격연구,” 『한국민속학』 10, 민속학회, 1977.

최운식, “효행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의식,” 『한국·일본의 설화연구』, 인하대학교출판부, 1987.

한영우, 『조선전기사회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83.